

화정2지구 주민불편 최소화 대책 시급

도시환경정비 10년 넘게 표류
서구청 주민동의요건 충족 못해
대법 '사업처분 무효화' 판결
LH, 사업포기·재추진 면밀 검토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시행중인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현장 모습. 축구장 3개 크기의 공사 현장 한 가운데 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있다.

15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서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화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아파트 건설공사라고 적힌 높이 4~5m짜리 대형 펜스가 좁은 주택가 골목을 빙 둘러싸고 있었다. 펜스 안을 들여다보니 축구장 3개 크기(2만5000㎡)의 공사장은 3개월 전부터 중단된 채 출입이 통제됐다. 펜스 주변으로 빼곡히 주차된 승용차들은 골목길 통행을 힘들게 했고 시야를 가린 높은 펜스만 눈에 띈다 들어 답답하게 했다. 공사장 앞에 마련된 건설 인부들을 위한 식당도 문이 닫혀 있었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고쳐보려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생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장기 표류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이 최근 해당 주민들이 제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 "적법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관련 사업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시한 광주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다.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정모씨 등 10명이 광주시 서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보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화정 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지구로 지정된 지 10년 만인 지난해 12월 첫 삽을 떴다가 5개월 만에 중단된 이후 끝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당장, 서구청은 법원 판결로 LH의 사

업시행자 지위도 무효화돼 어설플 행정 처리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절차와 사업시행자 재지정 절차까지 거쳐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대로라면 공사 재개가 올해안에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서구청은 일단, LH를 사업시행자로 재지정하는 게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지난 8일 부랴부랴 LH 광주 전남본부를 방문, 협조를 요청한 상태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LH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사업 포기·재추진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이다.

LH는 서구청측에 이달 말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도 10년 넘게 도시 환경정비 사업이 표류하면서 슬럼화됐던 주변 환경이 언제 나아질 지 장담하기 어렵게 되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LH가 화정2지구에 공급하는 아파트(440가구)는 광주지역에 4년 만에 공급하는 분양아파트(332가구)가 포함됐다. LH는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사업 등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임대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4년 10월 효천2지구(521세대)에 분양아파트를 공급한 이래 여태껏 분양아파트를 공급하지 않았다.

LH 아파트의 경우 민간 아파트에 비해 분양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입지 여건 등이 장점으로 꼽히는 만큼 새 아파트를 주변 시세보다 싸게 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주택업계 시각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화정 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청은 지난 2007년 11월 화정동 778번지 일대 주택가 2만5000㎡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글·사진=김지를 기자 dok2000@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145.12(-16.73) - 금리(국고채 3년) 2.05(0.00)
↓ 코스닥 718.87(-12.63) ↑ 환율(USD) 1134.30(+2.90)

부가티·페라리가 영업용이라고?

고가 수입차 76% 영업용 법인세 탈루막기 대책 시급

대당 1억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10대 중 8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소득층이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구입, '회사 차'로 둔갑시켜 세제 혜택을 받는 '누니만 회사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수입차 용도별 등록 현황(2013~2018년 7월)'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6512대 중 76.4%인 1만2614대가 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다. 전체 수입차의 66.4%가 개인용으로 등록되고 법인·영업용은 3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고가 차량의 법인·영업용 등록 비율은 눈에 띄게 높다. 대당 2억원이 넘는 초고가 차량의 경우 격차가 더 컸다.

같은 기간 개인용으로 등록된 수입차는 고가 251대(9.1%)인 반면, 업무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88.3%에 이르는 2428대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법인용으로 등록된 수입차 중에는 취득액이 25억9000만원에 이르는 부가티의 베이론도 포함됐다. 또 페라리의 라페라리 2대(17억원, 16억4000만원), 벤츠 SLS AMG(12억원), 애스턴마틴의 밴키시 자गत 불란테(11억5000만원), 포르쉐 918스피어더(10억9000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원), 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000만원), 재규어 XJ 3.0D(8억원) 등도 법인용으로 등록됐다. 김 의원은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만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픽스, 잔액기준 13개월째 상승

주택담보대출금리 오름세 전망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잔액 기준으로 13개월째 상승세를 보였다. 은행연합회는 9월 코픽스가 잔액 기준 1.90%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신규취급액 기준은 1.83%로 0.03%포인트 상승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로써 잔액 기준 코픽스는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7~8월에 전월 대비로 하락했다가 이월에 다시 상승세

로 돌아왔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이다. 코픽스가 오르면 이에 연동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일제히 오른다. 은행연합회는 "잔액기준 코픽스는 시장금리 변동이 서서히 반영되지만, 신규취급액 기준은 잔액기준보다 시장금리 변동이 신속히 반영된다"며 "코픽스와 연동하는 대출을 받을 때 이런 특성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장년 54% 재취업 경험 ... 임금 이전 직장 못 미쳐

재취업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 10명 중 4명은 이전 직장보다 못한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40세 이상 중장년 518명을 대상으로 발인 '2018년 중장년 구직활동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4.8%가 재취업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재취업 후 임금 수준은 주된 직장 대비 '50%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60%' 19.4%, '60~70%'

15.5% 순이었다. 이전 주된 직장보다 임금이 많이 받는다는 답변은 1.8%에 불과했다. 중장년이 주된 퇴직 이유는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로 인한 경우가 56.6%로 가장 많았다. 정년퇴직(21.4%), 사업부진 또는 휴·폐업(13.3%) 등이 뒤를 이었다. 재취업한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1년 미만(45.4%), 1년 이상~2년 미만(29.2%), 2년 이상(25.4%) 순으로 조사됐다. /김지를 기자 dok2000@

광주은행 등 지역 금융권, 소상공인 지원에 힘 모은다

정도 천년 기념 업무협약
1000개 업체 300억 지원
3%대 저금리 대출 적용



광주은행은 15일 오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유관 기관과 함께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최형천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종광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우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종원 전북은행 부행장, 정찬암 광주은행 부행장, 유해근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5일 오후 전남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주신용보증재단, 전북신용보증재단, 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 전북은행과 함께 '전라도 정도 천년 기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광주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전라도의 관공지 인근에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총 1000개 업체에게 지역 재단을 통해 약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보증은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대출기간 5년 이내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대출금액 3000만원이하 고객에게는 100% 전액보증서를 발급해주며, 대출금

리는 최저 3.10%~최고 3.50% 수준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전라도의 정도 천년을 기념하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지역의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

으로도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지역민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 은행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번 정도 천년 기념 업무협약에 앞서 지난 7월 광주신용보증

재단에 5억, 9월 전남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특별출연함으로써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오피스텔 임대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보 1천만, 월50만원 임대보장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급매 - 8400만원

문의. 010-3605-5000

혈당조절

식후 혈당 상승억제!!!
식후혈당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혈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식후 2개월씩... 하루 2번으로 식후 혈당상승 억제 아!!!
삼성제약헬스케어(주) 당디펜스(D.Defense)
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1일 4캡슐로 혈당조절이 충분합니다.

당 디펜스 이분들께 권해드립니다

- ▶혈당조절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식후 혈당 상승이 걱정되시는 분
- ▶평상시 당수치가 높아 혈당조절이 잘 안되시는 분 ▶혈당을 조절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 ▶생활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010-3598-7080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